

# 광주시, 문화전당 랜드마크 조성 TF 만든다

〈태스크포스〉

다양한 공연·전시 하나로 묶는

‘프린지 페스티벌’로 행사 특화

옛도청 분수대 및 광장 조성도

광주시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실·국, 문화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업 시스템을 가동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구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를 위해 총괄부서, 관련 부서, 전문가, 유관기관 간 협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남로 차없는 거리’와 금남공원 야외공연, 총장로축제, 사직 포크음악제 등 행사가 산발적으로 전개돼 ‘문화전당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시는 우선 문화전당 주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 및 전시를 하나로 묶어 가칭 문화전당 프린지 페스티벌을 운영하기로 했다. 프린지 페스티벌은 특정 기준으로 작품을 선정하지 않으며 아마추어에서 전문 예술단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다.

시는 효율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 책임관(문화도시정책관)과 코디네이터를 지정하고 문화, 관광, 도시디자인, 도로 등 관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부서와 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문화재단, 예총, 민예총, 관광협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비엔날레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TF를 구성한다.

시는 또 문화전당 인근에서 매주 말 연중 상설공연 및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남로 일원(518m) 보행환경 정비 및 광주상징길 조성과 보도블럭 등을 정비하는 문화전당권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벌인다.

구체적으로 금남공원, 5·15민주광장, 광주천 교량 및 사직공원 기타의 거리와 금남로, 광주천 아라리오광장을 조성, 광주만의 저녁풍경을 만든다. 민주광장 분수대 아래 지하공간을 복합문화·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TF는 20일 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시 회의를 개최,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김일용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협업 TF 운영을 통해 광주를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조기에 조성하고, 시민 및 외지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각종 공연 및 전시의 중복을 피함으로써 전당 주변 프로그램의 효율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자동차 전문가’ 30명 모집...부품기업 기술·경영 지원

광주시는 자동차부품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자동차 분야 전문가를 기업에 어드바이저로 지원한다.

시는 올해를 자동차산업벨리 육성 원년으로 삼고 관련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서 기술·경영, 글로벌 비즈니스, 제조공정혁신, 원천기술 등 4개 부문에서

‘자동차 어드바이저(전문가)’ 총 30여 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원

전문가 그룹은 개별기업과 1대1 멘토로 지정돼 애로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밀착해서 컨설팅하고, 기업 현장 방문이나 합동간담회 시 동행해 현장자문은 물론, 지역기업의 경영활동을 컨설팅하는 등 다양한 자문활동을 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광주지역 자동차분야 및 전문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컨설팅을 수행한 자 ▲기술 및 경영지도사 등 등록된 자로 자동차분야 컨설팅을 수행한 자 ▲기타 광주시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로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자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지원단선정위

원회를 거쳐 전문 분야별로 균형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적정 인원을 자문단으로 선정해 전문가 집단의 이력 등을 기업에 공개한 후,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자동차산업벨리 조성 추진의 원년인 만큼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지원 향상된 ‘기업애로 어드바이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중소기업 시설·운전 자금 신청 접수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이어 구조고도화 자금 3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13억원(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3억원) 이내이며,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의 경우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연 2.24% 변동금리가 적

을 받는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등 서류를 작성해 오는 25일부터 하남공단 소재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골목상권특례보증 연중 지원 등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산소방서, 폭발 우려 소화기 교체 캠페인

광주 광산소방서(서장 양종근)가 최근 소화기 사용과정에 노후된 가압식 소화기가 폭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축압식 소화기’로 조기교체를 독려하는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서울의 모 업체에서 가압식 소화기를 사용에 화재를 진압하려다 소화기가 폭발하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노후된 가압소화기와 관련된 사고가 연이어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산소방서는 관내 20년 이

상된 아파트에 설치된 가압식 소화기를 조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광산소방서는 관내 가압식 소화기가 설치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압식 소화기의 위험성, 폐기처리방법 등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노후 가압식 소화기의 사용중 폭발위험성을 알리면서 조기 교체를 독려하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시간부급 공무원들, 민생현장 업무 강화

광주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새해 들어 900여곳의 현장을 돌며 500여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조치하는 등 현장을 강하게 나섰다.

간부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 새해 현장업무를 통해 539건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접수해 이 가운데 207건은 즉각 조치하고, 332건은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 기간 간부공무원들이 찾은 소관업무 현장 및 유관 기관·단체만도 907곳에 이른다.

이는 민선6기 시청 철학인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부서 단위의 현장방문 계획을 확대해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광주시에인인권센터, 마을분쟁해결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삼성전자 협력업체 등 907곳의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시는 앞으로도 형식적 방문이 아닌 시의 주요 정책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민생 현장을 찾음으로써 생생한 민심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현장행정을 한층 강화해 ‘더불어 사는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주민과 눈 치우기 윤창현 광주시장은 19일 새벽 동구 학동 원지교~삼익세라믹 구간에서 주민들과 함께 제설작업을 한 뒤, 직접 제설차량에 탑승해 관내 도로의 제설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광주시 제공〉

## 세 얼굴

### “주민 안전 최우선 감동 치안 펼칠 것”

장 효 식 광산경찰서장



“광산구민이 없는 광산경찰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신임 장효식(58) 광산경찰서장은 “40만 구민이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치안 감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장 서장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한치의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안전한 광산구를 위해 법 질서 확립에 최

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87년 경사로 경찰에 첫 입문한 장 서장은 서울 수사경찰서와 송파경찰서 정보과장을 거쳐 전남 경찰청 치안지도관, 광양경찰서장, 경기2청 정보보안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승렬기자 srchoi@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NPL매 •NPL중개 •NPL질권대출 •경락잔금대출 •NPL등기업무

### NPL 질권대출 전국 특판공지

국내 최저금리!! 최대 한도!! 제이앤와이도시개발에서로 업계 최고의조건으로 질권대출을 안내합니다.

대출항목	아파트	주택	토지,상가,공장,숙박,사우나등
금리	3.8~5.5%	4.0~5.5%	5.5~6.5% (혹은 7.0%)
대출조건	전국 ~90%한도까지 개인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전국 ~90%한도까지 개인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중도	중도 무	중도 무	중도 무
취급	취급 무	취급 무	취급 무
한도약정	한도약정 무	한도약정 무	한도약정 무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개피할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낙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